

1995年 레미콘 需要動向 分析 및 展望

韓國레미콘工業協會 調査課

1. 1995년 상반기 건설경제동향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95년도 1-4월 국내의 건축허가면적은 총 29,820천㎡로서 전년대비 23.8%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택미분양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주거용 건축허가면적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는데, 95년 1-4월 중에 19,270천㎡이 허가되어 전년대비 41.4%가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업용은 9,669천㎡로서 전년비 7.8%, 그리고 공업용은 4,571천㎡로서 18.5%가 각각 증가되었다.

금년 상반기에 이처럼 건축허가가 급증하고 있는 원인은 최근 円高 등 경기 활황 분위기에 편승, 기업들이 공장설비투자를 대폭 늘리고 있기 때문이며, 주거용의 경우는 수도권지역에 공공택지가 다수 개발되어 공급된데다가 표준건축비의 조정이 지난 해의 경우 6월초로 지연되어 상반기의 허가물량이 저조했던 반면, 올 해는 발표시기가 3월초로 앞당겨지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건설사업승인이 활발히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한편 대한건설협회에서 발표한 국내 건설공사 수주액을 살펴보면 95년 1-3월 중 국내 건설공사계약액 누계는 전년동기보다 15.9% 증가한 8조 8,282억원으로 나타났으며, 이 가운데 공공부문이 1조 9,903억원으로 6.6%의 증가에 그쳤으나 민간부분은 6조 8,379억원으로

18.9%의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95년 1/4분기중 공공토목부분은 전년동기비 3.7%의 미미한 증가에 그쳤으나 건축에서는 비주거용, 관공서건물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주공과 지자체의 아파트 발주물량이 전년동기보다 2배가 넘는 호조에 힘입어 13.7%의 증가세를 보였다.

민간부분은 전년에 호조를 보이던 토목이 감소세로 돌아섰으며, 건축에서는 아파트미분양의 영향으로 주거용이 부진을 보였으나 비주거용 건축이 전년동기비 2배이상 증가하는 호조에 힘입어 18.9%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 1995년 1/4분기 레미콘수급동향

레미콘산업은 1995년 1/4분기 중에 중·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민간건축경기가 활성화됨에 힘입어 안정된 성장을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1/4분기중의 전국 레미콘출하실적은 2,027만㎡로서 지난 해의 1,796만㎡에 비해 12.9%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레미콘수요가 증가된 주된 요인으로서 아파트 미분양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지방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주택부문의 경기가 상승국면에 진입하고 있으며, 엔고의 영향으로 경기활성에 따라 공장 등 설비투자가 증가되고 있기 때문으로

표1 건축허가면적 현황

(단위 : 천㎡, %)

기간	구분	합 계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문 교	
		합 계	전년비	주거용	전년비	상업용	점유비	공업용	점유비	문 교	점유비
94.	1/4	21,947	-24.0	10,109	-41.0	6,502	-14.5	2,948	51.4	2,416	8.8
	2/4	27,190	-12.0	13,572	-25.3	7,384	19.6	3,146	-12.0	3,088	3.6
	3/4	30,725	14.1	17,196	12.4	6,789	24.4	3,701	30.5	3,039	-8.6
	4/4	36,332	17.0	22,510	20.6	6,826	23.3	3,497	15.8	3,500	-8.5
	년계	116,221	-1.3	63,387	-8.5	27,501	11.0	13,291	16.8	12,043	-2.5
95.	1/4	25,534	16.2	13,741	35.9	6,843	5.3	2,990	1.5	1,959	-18.9
	1월	5,839	8.9	2,788	38.0	1,685	-11.1	766	8.9	600	-19.3
	2월	7,497	17.8	3,938	25.2	2,153	22.5	804	9.4	602	-16.7
	3월	12,197	19.0	7,015	41.9	3,006	5.5	1,420	-5.9	757	-20.3

표2 건설공사수주실적현황

(단위 : 백억원, %)

기간	구분	합 계		주거용		상업용		공공용		민 간	
		합 계	전년비	주거용	전년비	상업용	점유비	공공용	점유비	민 간	점유비
94.	1/4	759	9.5	550	13.3	209	0.8	187	-18.7	575	24.1
	2/4	1,298	30.3	860	18.4	438	62.7	487	29.8	811	30.7
	3/4	1,128	23.3	841	23.6	287	22.4	419	26.8	533	-8.8
	4/4	1,899	29.2	1,151	19.1	748	48.7	918	37.1	981	22.7
	년계	5,085	24.8	3,403	19.0	1,682	38.5	2,012	25.3	2,900	17.5
95.	1/4	883	16.3	699	27.1	183	-12.3	199	6.6	684	18.9
	1월	233	-4.1	182	-9.8	50	24.1	43	18.4	190	-8.0
	2월	218	19.3	172	38.9	46	-22.2	61	13.0	157	19.5
	3월	432	29.4	345	54.0	87	-20.5	95	-1.3	337	42.0

판단된다.

수요별로 살펴보면 민수부분은 1,734만㎡를 출하하여 전년대비 15.3%가 증가한 반면, 관수부분은 293만㎡를 출하하여 0.2%의 증가에 그쳤다.

민수부분의 수요증가율은 그림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3년 1월이후 지속적으로 관수부분의 수요증가율을 웃돌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1994년 하반기 이후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1993년 4/4분기 이후 지방의 수요증가율이 지속적으로 수도권 지역의 수요증가율을 상회하고 있는데, 1995년 1/4분기에도 수도권 지역은 729만㎡를 출하하여 전년동기대비 0.3%가 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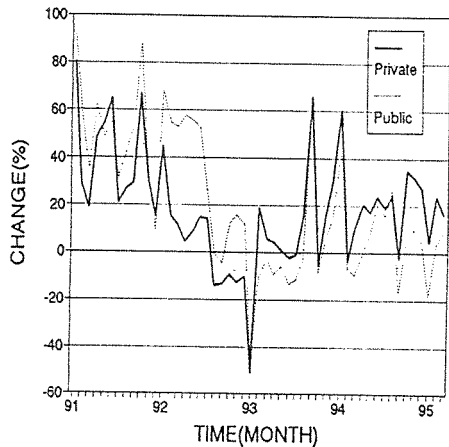


그림 1. 민·관수별 레미콘수요증가율 추이

소된 반면, 지방에서는 대구지역이 지하철, 도시고속화 도로사업의 증대에 힘입어 38.7%가 증가된 것을 비롯, 광주·전남지역이 35.8%, 경북지역이 23.1%가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월별로는 1월에 452만^m³로서 전년비 0.2%의 소폭 증가에 그쳤으나 2월에는 565만^m³로서 20.9% 증가되었고, 3월에는 1,009만^m³로서 15%가 증가하였다.

업체별로는 쌍용양회공업(주)가 19개 공장에서 117만 4,049^m³를 출하하여 전국 실적의 5.8%를 점유하였으며, (주)동양시멘트는 14개 공장에서 62만 8,141^m³를 출하하여 3.1%를 점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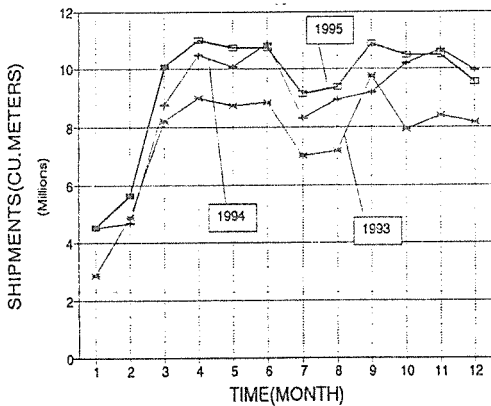


그림 2. 월별 레미콘출하실적

3. 레미콘업계 동향

1995년 3월말 현재 전국의 레미콘업체수는 489개 업체 611개 공장이 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994년말과 비교하여 거의 증가가 없는 것인데, 실제 1995년 1/4분기에 신설된 업체수는 19개 업체에 달하였으나, 부도 등으로 제외된 업체가 18개 업체이기 때문이다.

레미콘업체의 부도율은 1990년대 이후 매우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1990년 1월-1995년 3월까지의 신설업체가 461개 공장이었으나 동 기간의 부도업체수도 128개에 달하였다. 이

표3 지역별 레미콘출하실적

(단위 : ^m³, %)

지역		구분	1/4분기 계		
			1995년	1994년	증감율
서울·경인	민需	6,446,245	6,269,454	2.8	
	官需	840,549	1,035,916	-18.9	
	計	7,286,794	7,305,370	-0.3	
강 원	민需	467,516	477,780	-2.1	
	官需	41,127	66,166	-37.8	
	計	508,643	543,946	-6.5	
충 북	민需	683,883	644,027	6.2	
	官需	71,238	51,536	38.2	
	計	755,121	695,563	8.6	
대전·충남	민需	1,535,132	1,225,510	25.3	
	官需	129,739	138,453	-6.3	
	計	1,664,871	1,363,963	22.1	
전 북	민需	725,021	601,259	20.6	
	官需	133,465	113,241	17.9	
	計	858,486	714,500	20.2	
광주·전남	민需	1,661,042	1,248,362	33.1	
	官需	422,755	286,083	47.8	
	計	2,083,797	1,534,445	35.8	
대 구	민需	772,815	552,069	40.0	
	官需	159,933	120,332	32.9	
	計	932,748	672,401	38.7	
경 북	민需	1,587,465	1,223,171	29.8	
	官需	347,963	349,569	-0.5	
	計	1,935,428	1,572,740	23.1	
부 산	민需	771,109	598,943	28.7	
	官需	117,894	153,595	-23.2	
	計	889,003	752,538	18.1	
경 남	민需	2,484,448	2,010,191	23.6	
	官需	574,352	544,444	5.5	
	計	3,058,800	2,554,635	19.7	
제 주	민需	204,977	185,918	10.3	
	官需	86,485	61,165	41.4	
	計	291,462	247,083	18.0	
전 국 총 계	민需	17,339,653	15,036,684	15.3	
	官需	2,925,500	2,920,500	0.2	
	計	20,265,153	17,957,184	12.9	

- 와 같이 레미콘업체의 부도율이 높은 이유는
- 건설업 신규면허의 개방에 따라 건설업체 수가 4배 이상 급증하였고, 이에 따라 건설업체의 부도증가 및 어음결제기간 장기화 등에 따라 레미콘업체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증가하였다.
 - 레미콘공장의 급증에 따라 과당경쟁이 이루어져 수익성이 악화되었다.
 - 원자재 가격 상승, 인건비 상승, 품질시험 비용 등의 원가상승요인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품판매가격에 적정히 반영시키지를 못하여 왔다.
- 는 점을 들 수 있다.

표4 레미콘 공장수 변동추이

(단위 : 개)

구분 \ 년도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공 장 수	363	484	536	562	610	611
(증 가 수)	85	121	52	26	48	1
부도업체수	4	15	39	17	35	18
신규업체수	89	136	91	43	83	19

4. 1995년 건설경제 전망

KDI에서 발표한 1995년도 경제전망을 살펴보면, 올해 국내경제는 경제성장률이 8.5%에 이르러, 설비투자도 작년에 23.3%나 급증한데 따른 조정으로 올 하반기들어서는 점차 증가율이 13%대로 낮아지나 연간으로는 17%를 웃도는 높은 증가율을 지속하며, 건설투자도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에 따라 작년의 4.6%에서 올해에는 다소 호전된 6.5%의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한편 국토개발연구원이 지난 1/4분기까지의 한국은행 추정치를 토대로 예측한 건설투자전망 자료에 의하면 금년 한 해 동안의 총 건설투자는 지난 해의 50조 6,370억원보다 6.7% 증가한 54조 446억원에 이르며, 이중 상반기에는

지난 해보다 7.1% 늘어난 24조 6,88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부문별로는 토목의 경우 상반기에는 전년동기 대비 12.9% 증가한 8조 6,790억원 수준에 도달하게 되며, 연간으로는 11.7% 상승한 22조 2,99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였다.

건축부문에서는 비주거용의 경우 경기회복에 따른 사무실 및 공업용 건축수요의 증가에 힘입어 전년대비 8.0% 정도 증가한 14조 8,328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였다. 반면 주거용 건축투자는 부동산 경기침체 및 미분양 사태 등으로 연간으로는 0.2% 감소한 16조 9,124억원 수준에 이를 전망이다.

건축허가면적과 관련하여서는 상반기중의 총 건축허가면적이 전년동기대비 10.2% 증가한 5,419㎡에 이르며, 연간으로는 다소 불확실한 요소가 많으나 지난 해보다는 활기를 띠어 주거용에서 2.6%, 그리고 비주거용에서는 1.4%가 늘어나는 등 총 1.7%증가한 1억 1,823만㎡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한편 주택은행이 전국 280개 주택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95년 2/4 및 3/4분기 주택건설경기 전망조사에 따르면 분양실적, 공사량, 자금사정 등 5개 항목에 걸친 주택경기 전망지수(BSI)가 2/4분기와 3/4분기 각각 123.4, 132.9를 기록하여 전반적으로 주택건설경기가 상당히 호전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 같은 조사결과는 일반 경기의 호조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해에는 6월에 인상된 표준건축비가 올해는 3월에 인상되어 주택건설업체들의 영업활동이 활기를 띠고 있고, 그동안 자금난을 가중시켜 왔던 미분양 아파트 적체현상을 완화시키기 위해 정부가 임대주택사업 활성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5. 1995년 레미콘수요전망

앞서의 타 기관의 건설경제 전망자료를 근거로 할 때 레미콘수요는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표5 1995-96 경제전망(KDI)

(前年同期對比：%)

구 분	1994 ^{P)}	1995					1996
	年間	1·4	2·4	3·4	4·4	年間	年間
國內總生產 (국민총생산)	8.4 (8.2)	9.3 (9.4)	9. ¹ (9. ¹)	8.5 (8.6)	7.5 (7.5)	8.5 (8.6)	7.3 (7.2)
총소비 (민간소비)	7.0 (7.4)	7.8 (8.2)	8.2 (8.6)	8.4 (8.8)	8.0 (8.5)	8.1 (8.5)	7.4 (7.8)
(정부소비)	(4.4)	(5.8)	(6.0)	(5.7)	(5.5)	(5.7)	(5.1)
총고정투자 (설비투자)	11.7 (23.3)	15.0 (25.3)	11.4 (17.9)	10. ³ (15. ¹)	9. ¹ (13. ¹)	11.2 (17.4)	6.8 (7.1)
(건설투자)	(4.6)	(6.7)	(6.8)	(6.7)	(6.1)	(6.5)	(6.6)
총수출 (상품수출)	16.2 (14.6)	26.3 (25.7)	14.2 (13.4)	16. ³ (15. ⁶)	11. ³ (10. ²)	16.5 (15.7)	10.1 (9.4)
총수입 (상품수입)	21.8 (22.0)	25.7 (25.8)	17.8 (16.7)	17. ⁶ (16. ³)	10. ⁷ (9. ⁴)	17.5 (16.6)	8.3 (7.0)
物價(期間平均) 소비자물가	6.3	4.6	5.5	5.5	5.9	5.4	5.2

(註：P)한국은행잠정치

표6 1995년 건설투자 및 건축허가면적의 예측(국토개발연구원)

△ 총건설투자규모

<단위：십억원(=1990년불변가격), %>

구 분	주 거 용	비주거용	토 목 용	총건설투자	
94	1·4(%)	4,189(7.7)	3,340(16.1)	2,660(-1.5)	10,189(7.6)
	2·4(%)	4,444(-1.9)	3,396(2.0)	5,024(6.1)	12,864(2.2)
	상반기(%)	8,633(2.6)	6,736(8.5)	7,684(3.4)	23,053(4.5)
	연간(%)	16,941(-0.4)	13,737(5.9)	19,958(8.2)	50,637(4.6)
95	1·4(%)	4,161(-0.7)	3,805(13.9)	3,034(14.0)	10,994(8.0)
	2·4(%)	4,413(-0.7)	3,636(7.1)	5,645(12.4)	13,694(6.5)
	상반기(%)	5,547(-0.7)	7,441(10.5)	8,679(12.9)	24,688(7.1)
	연간(%)	16,912(-0.2)	14,833(8.0)	22,299(11.7)	54,045(6.7)

△ 총건설허가규모

(단위：천㎡, %)

구 분	주 거 용	비주거용	총건축허가	
94	1·4(%)	10,109(-41.0)	11,665(0.8)	21,974(-24.1)
	2·4(%)	13,572(-25.3)	13,618(7.0)	27,189(-12.0)
	상반기(%)	23,681(-33.0)	25,483(4.0)	49,164(-17.8)
	연간(%)	63,387(-8.5)	52,847(9.0)	116,234(-1.3)
95	1·4(%)	13,741(35.9)	11,793(-0.6)	25,534(16.2)
	2·4(%)	14,286(5.3)	14,365(5.5)	28,652(5.4)
	상반기(%)	28,027(18.4)	26,158(2.6)	54,186(10.2)
	연간(%)	64,623(2.0)	53,607(1.4)	118,229(1.7)

표7 1995년 2/4 및 3/4분기 예측BSI

항 목	'95.1·4	'95.2·4	'95.3·4
	실 적	예 측	예 측
분 양 실 적	102.5	119.4	128.9
자 금 사 정	76.1	98.8	119.6
공 사 량	112.5	134.0	140.7
신규택지확보량	100.4	113.9	118.6
자 재 구 입 량	118.2	134.4	142.5
고 용 수 준	125.4	125.9	132.5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1995년 2/4분기 이후의 레미콘수요는 비교적 시계열이 안정되고 정상적인 시멘트소비량의 시계열자료를 이용하여 시계열모형에 의거, 시멘트수요량을 예측한 후, 시멘트소비량의 레미콘전화를 65%, 그리고 레미콘 제조용 단위 시멘트 소비량 0.31톤/m³을 이용하여 레미콘수요를 측정하였다. 즉

$$RE(t) = [\alpha \times CE(t)] / \gamma$$

RE(t) : t월의 레미콘수요(m³)

CE(t) : t월의 시멘트수요(톤)

α : 시멘트소비량의 레미콘전화율(=65%)

γ : 레미콘1m³당단위시멘트소비량(=0.31톤/m³)

시멘트소비량의 1980년 1월-1995년 3월의 월별 시계열자료(단위 : 만톤)를 이용하여 파라미터를 추정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시계열의 구조 및 예측결과는 그림3과 같다. 지역별 레미콘수요의 예측은 최근의 1994년 4월-1995년 3월의 12개월 점유비의 평균치를 이용하여, 전국 월별 출하량에 대한 지역별 출하량을 추정하였다. 예측결과는 표 8에 정리하였다.

예측결과에 의하면 2/4분기에는 전국적으로 3,247만m³를 기록하여 전년비 3.4%가 증가할

Type	Estimate	St. Dev	t-ratio
AR 1	-0.4028	0.0715	-5.63
SAR 12	-0.7443	0.0665	-11.20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3/4분기에는 2,942만m³로서 11.3% 증가, 4/4분기에는 3,054만m³로서 0.8%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리고 연건으로는 1억 1,270만m³로서 전년비 5.7%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민·관수별로는 관수의 수요정체현상이 지속되어 민수부문 출하는 전년대비 7.4%의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관수부문은 2,055만m³에 그쳐 전년 대비 1.0%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지역별로는 서울·경인지역의 경우 4,212만m³를 기록하여 2.6%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으며, 지방에서는 광주·전남지역이 13.3%가 증가될 것으로 예측된 것을 비롯, 대구 13%, 부산 11.5% 등 남부지방의 수요증가현상이 확산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각 지역별로 나누어 95년 하반기에 레미콘 수요전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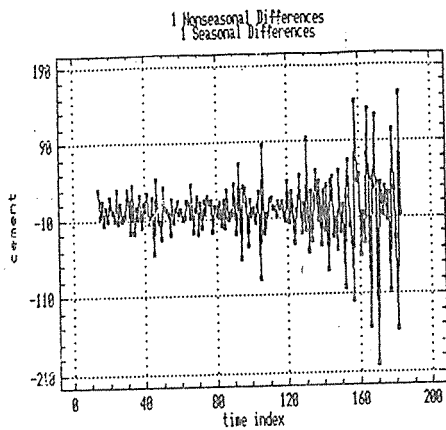
1) 서울, 경인

서울권은 지난 해에는 건축허가면적이 1,502만m²를 기록하여 전년대비 26%가 감소하는 등 건축경기가 좋지 못하였으며, 올해 들어서도 비록 1/4분기에 건축허가가 32% 증가되기는 하였으나 전반적인 건축경기의 부진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주상복합건물 등 상업용 건물을 중심으로 레미콘수요가 활발하며, 지하철 신·증설에 따른 레미콘수요증가가 기대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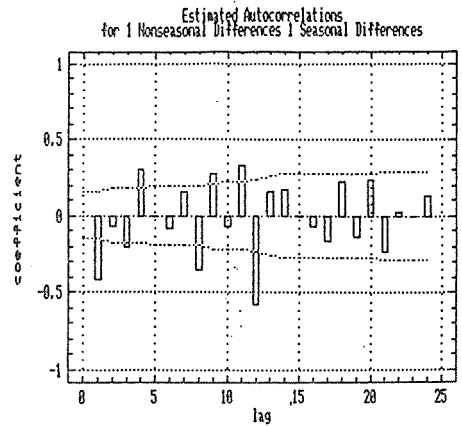
인천권은 지난해 건축허가면적이 611만m²로서 3.7% 증가한데 이어 올 1~3월에는 무려 135.8%가 증가되어 건축경기가 활성화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하반기에는 인천 계산동에 16,000세대 규모의 아파트건설공사가 착공될 예정이어서 수요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견되나 다만 전국적인 미분양의 여파로 착공시기가 다소 늦추어질 수 있다는 것이 변수이다.

경기북부권은 업체수의 급증에 따라 수요가 증가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수요의 절대증가율은 그리 높은 편은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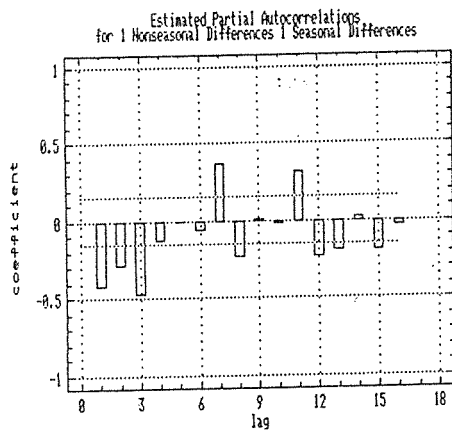
안양수원권은 상업용부문의 수요는 감소하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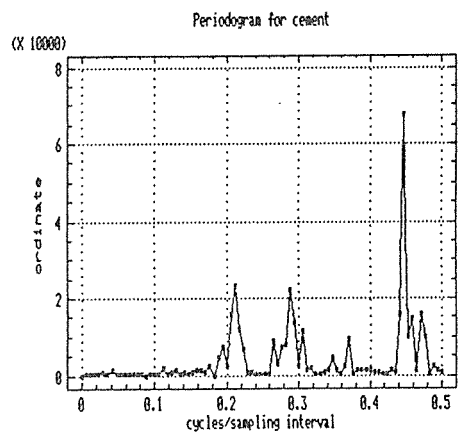
(Time Siquenie plo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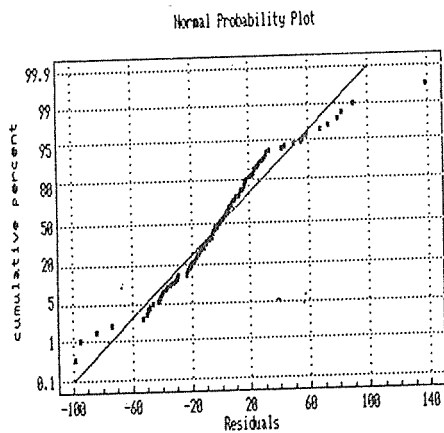
(Plot AC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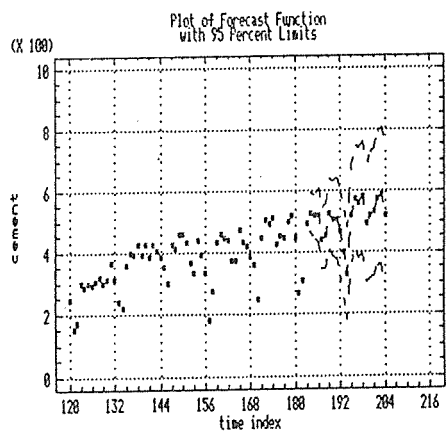
(Plot PACF)



(Periodogram)



(Plot residuals)



(Plot forecasts)

그림 2. 시멘트소비량의 시계열구조 및 예측결과

으나 수원지역의 권선지구, 영통지구, 화서지구 등을 중심으로 아파트건설경기가 활성화됨에 힘입어 대체적으로 레미콘경기가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가 하반기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천 여주권은 여주지역의 경우 레미콘수요가 그리 높지 못하나 이천지역의 경우는 상업용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아파트 건설이 대량으로 발주되고 있어 수요환경이 매우 좋은 편이다.

2) 강원지역

춘천지역은 상반기에는 대형 건설현장의 감소 및 시중자금사정의 악화로 상업용, 개인주택물량이 감소함에 따라 레미콘수요가 감소하였으나 하반기에 들어 지하상가건설, 퇴계동, 석사동, 후평동 등지의 아파트건설공사가 신규로 착공될 예정이어서 건축부분의 레미콘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원주지역은 금년 상반기에 구곡지구, 단계동의 아파트건축공사가 활발하여 수요가 증가된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이러한 수요 증가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강릉지역도 상반기에는 전년수준에 머물렀으나 하반기에는 5~6개소의 아파트 신축현장이 나올 예정이어서 수요 증가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강원지역 레미콘 수요증가율은 지난해에 강원 전지역에 걸쳐서 농로포장공사가 대대적으로 진행되어 레미콘물량이 크게 증가되었던 관계로 수요증가율은 그리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며, 시계열모형에 의해 예측한 결과에 의하면 514만^m를 기록하여 전년보다 3.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3) 충북지역

청주권과 단양제천권은 94년도와 거의 비슷한 수준의 건설경기를 유지하고 있으며, 옥천, 영동권도 94년에 비해 건설경기가 다소 미진하나 상

태이어서 민수에 비해 주로 관수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는 건축허가의 증가와 수해복구에 의해 관수부분의 수요가 증가되었기 때문이다.

청주권은 하반기에 들어 공공공사 및 개인업자, 상가부문에서의 레미콘수요가 꾸준히 나타나고, 가경동 등지의 아파트신축이 이루어지면 나름대로 수요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충주권은 상반기에 아파트건설공사가 완료되는 현상이 많아 하반기에는 건축부분의 수요가 다소 감소될 것으로 보이나 공장건축 및 광역상수도 건설공사 등에서의 레미콘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년간으로 볼 때 하반기에 다소의 수요회복이 기대되나 상반기의 부진으로 인하여 485만^m를 출하하여 1.8%의 증가에 머물 것으로 예측된다.

4) 대전, 충남지역

대전지역은 EXPO에 따른 수요가 완료됨에 따라 현재는 수요둔화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관저·원리지구APT(4,000세대), 송강지구, 둔산상업용 건물에 출하가 지속될 전망이다. 수요증가율은 낮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에 비하여 천안지역은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레미콘수요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서산권도 건설경기가 금년에 들어와서 매우 호조를 보이고 있어 하반기에 들어서도 아파트 및 개인주택, 다세대주택을 중심으로 레미콘수요가 호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서천권도 레미콘수요가 올해는 다소 상승되고 있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연간으로 볼 때 대전, 충남지역은 서북지역의 수요증가가 이루어지나 그동안 대량의 아파트건설이 이루어진 대전지역에서의 수요정체로 인하여 1,016만^m를 출하하여 전년보다 4.7%의 수요증가가 예견된다.

5) 전북지역

전북지역은 상반기에는 아파트미분양의 여과

로 전주지역(평화동, 송천동)의 아파트건설공사 등을 제외하고는 경기가 좋지 못하였으며, 현대자동차 공장건설도 거의 완료되어 전년에 비해 크게 증가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하반기에는 전주 인근에 6개소 이상의 아파트건설공사가 신규로 착공될 예정으로 있어 경기가 확대국면으로 바뀔 전망이다. 연간으로 볼 때 497만㎡를 출하하여 5.7%의 수요증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되었다.

6) 광주, 전남지역

광주, 전남지역은 대불공업단지, 새만금종합개발, 서해안고속도로 건설 등 대규모개발사업이 진행될 계획으로 있으며, 94년도에는 모처럼 아파트, 상가 등 민간건축경기가 살아나 민·관수물량공히 호조를 보여 40%가 증가하였다. 이러한 성장추세는 금년에도 지속되어 레미콘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고, 아파트신축공사 등 민간부문에서의 레미콘수요도 활기를 띠고 있다.

순천, 광양권은 우선 순천지역의 경우 레미콘수요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나 점점 나이지고 있는 상태에 있으며, 광양권은 물량이 작년보다 50%이상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태이다. 이는 포항제철의 광양제철소 5호기 시설공사가 3월초부터 착공되어 물량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간으로 볼 때 광주, 전남지역은 1,018만㎡를 출하하여 13.3%의 수요증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7) 대구, 경북지역

대구지역은 레미콘수급은 원활한 편으로서 지하철공사현장에서 대량의 레미콘 수요가 발생하고 있어 전년대비 13%의 수요증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포항경주권역은 포항제철에서 물량발주가 지속되고 있어 작년수준을 약간 상회하는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구미·김천권도 관수물량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구미3공단 등 공장건설 및 아파트공사현장을 중심으로 수요가 나

타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반면 안동권역은 레미콘수요가 다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작년의 경우 안동권역에 아파트건설공사가 매우 많았으나 올해는 미분양의 확산 및 주택경기의 침체로 물량이 감소되어 있기 때문이다.

전반적으로 경북지역은 하반기에는 수요가 다소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나 상반기의 수요증가에 힘입어 연간으로는 8.1%의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8) 부산, 경남지역

부산지역은 해운대신시가지 공사가 마무리에 접어들고, 아파트 미분양 확산 및 민원문제, 철근공급부족 등으로 아직까지 나타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레미콘수요가 급증할 만한 호재가 없는 편이다. 그러나 부암동아파트현장을 비롯하여 아파트건축공사가 꾸준히 진행되고, 주상복합건물 등 상업용 건축공사가 비교적 활발한 편이어서 3/4분기 12.7%증가, 그리고 4/4분기에는 2.9%가 증가하여 연간으로는 11.5%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남지역은 창원·마산지역 등 일부지역에서는 수요가 증가되는 경향을 나타내기도 하나 전반적으로 건설경기가 침체된 상태에 있으며, 상업용 건축 또는 개인업자의 물량도 약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대형공공공사의 발주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수요여건은 그다지 좋은 편은 아니다. 이와 더불어 아파트미분양의 확산으로 건설업체에서 허가를 기취득한 후에도 착공을 미루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어 하반기의 레미콘수요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9) 제주지역

제주지역은 1/4분기에는 수요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나 대단위 현상이 드물고 도로포장공사의 감소 등 관급공사의 부진이 이어져 레미콘수요가 다소 침체된 상태로 판단된다. 비록 하반기들어 항만, 포구 등의 시설공사에서

수요확대가 예상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선거이후 지역개발사업의 활성화 등이 기대되고는 있으나 연간 총 수요는 전년대비 5.9%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5. 현상의 이해 및 레미콘수급상의 과제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95년도의 건설경제활동은 안정된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과열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우선 건설경기의 선행지표인 건축허가면적이 표준건축비가 인상된 지난 해 6월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건축허가면적은 94년 3/4분기 14.1% 증가, 4/4분기 17.0% 증가, 95년 1/4분기 16.2% 증가를 기록하여 이러한 증가세가 지속될 경우 건설경기의 과열이 우려될 수도 있겠다.

그러나 건축허가의 증가율은 94년 하반기의 경우 상반기의 잠재물량이 표준 건축비의 인상 시기를 따라 하반기로 이월되었으며, 금년 상반기의 실적도 작년 상반기의 부진에 따른 반등이 가세하고 있기 때문에 지표상의 수치만으로는 과열이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단 건축경기가 상승세에 있다는 것만은 부인하기가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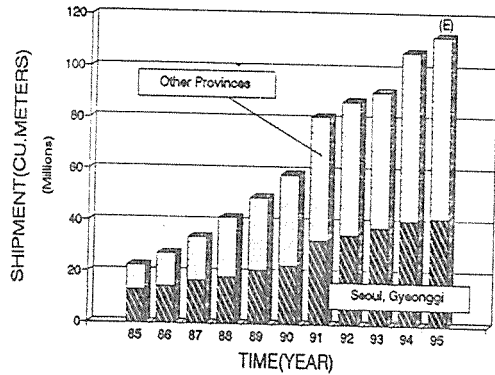


그림 3. 전국 레미콘출하의 예측

한편 1990년대 이후 시작된 자재업계의 설비신, 증설 작업이 거의 완료되어 건설경기가 1990년초의 200만호 주택건설, 토지초과이득세 등과 같은 외생적 요인이 가세하지 않는 한 현재 국내에 경제규모하에서의 건설투자를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인위적인 경기조절, 또는 진정/부양책을 강구하기 보다는 대형투자사업의 집행시기 조정 등을 통하여 외생적 충격요인을 가급적 완화시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된다.

표 8 1995년도 지역별 레미콘수요의 예측

(단위 : 만³, %)

구분 \ 기간	전국	민수	관수	서울 경인	강원	충북	대전 충남	전국	광주 전남	대구	경북	부산	경남	제주
95. 1/4	2027	1734	293	729	51	76	166	86	208	93	194	89	306	29
전년비	12.9	15.3	0.2	-0.3	-6.5	8.6	22.1	20.2	35.8	38.7	23.1	18.1	19.7	18.0
2/4(E)	3247	2628	619	1224	163	144	298	145	284	130	299	116	402	42
전년비	3.4	4.7	-1.9	-1.9	-4.6	-10.8	0.3	-2.4	18.8	18.7	10.3	14.6	14.6	-1.6
3/4(E)	2942	2381	561	1109	148	130	270	131	258	118	271	106	364	38
전년비	11.3	12.8	5.4	12.4	12.6	13.1	9.9	13.7	16.2	11.9	7.3	12.7	9.5	-13.0
4/4(E)	3054	2472	582	1151	153	135	281	136	268	122	281	110	378	39
전년비	-0.8	0.5	-6.1	0.8	10.1	3.9	-3.5	0.3	-5.9	-4.5	-1.6	2.9	-3.4	-16.0
년간(E)	11270	9215	2055	4212	514	485	1016	497	1018	464	1045	420	1450	148
전년비	5.7	7.4	-1.0	2.6	3.9	1.8	4.7	5.7	13.3	13.0	8.1	11.5	9.0	-5.9